

산업자원부 2000년도 업무계획

| 신지부 |

우리나라는 지난해 1,442억 달러 수출, 1,197억 달러 수입으로 24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.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, 사업구조조정 마무리 등 산업구조 개편 및 경쟁력 강화를 제고했던 한해였다. 올해도 세계경제는 미국의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경제회복세가 지속되어 '99년보다 다소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, 국내경제는 최근의 성장세와 대내외 여건에 비추어 볼 때 6%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.

이러한 기초 데이터를 근거로 올해 산업자원부는 업무계획을 통해서 정보기술, 글로벌 마켓의 형성, 시민사회의 성숙 등 21세기의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무역흑자 기반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.

- ① 産業技術革新시스템의 構築
- ② 電子商去來 擴散基盤 強化
- ③ 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
- ④ 技術力있는 中小·벤처企業의 成長與件 造成
- ⑤ 安定的 貿易黑字基調의 定着
- ⑥ 『世界的인 投資마당』의 與件造成
- ⑦ 積極的 에너지政策의 推進

〈편집자 주〉

1. 産業技術革新시스템의 構築

가. 技術開發投資의 지속 확대와
投資 效率性 제고

R&D 주도 成長與件의 조성

- 세제지원·기업신용평가 반영 등을 통하여 민간 R&D투자 확대 유도
- 정부의 산업기술투자 확대 [99:6,956억원
→ 2000:7,907억원 (+13.7%)]

• 과기부·정통부 등 관련기관과의 유연한
연계 협력체제를 구축

미래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
核心技術의 戰略的 開發

- 「선택과 집중」의 원칙에 따라 전략분야
를 선정
- 기술의 파급효과(Externality) 및 성공가능성(Feasibility)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지원기관간 역할분담(Division of Work)을 명확화

-부품·소재 등 산업기반기술과 미래형 성장주도기술에 중심

• 기술특성에 따라 장·단기로 구분하여 지원

-단기 : 산업현장의 공통메로기술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R&D

-장기 :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미래유망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시장지향형 전략적 R&D

→[産業技術發展 5個年計劃(2000~2004)]의 수립·추진

産業技術基盤 造成事業의

효율적 추진

• 전략적 R&D사업에 요구되는 인프라가 원활히 구축되도록 연차별 투자전략 마련 (향후 5년간 100대 기술인프라사업을 신규 추진)

• 개별사업을 기능적으로 재분류하고 상호 연계하여 추진

R&D 投資의 評價시스템 개선

• 개발과 평가의 주체를 분리하여 객관성을 높이고, 평가결과를 일 반에 공개하여 공정성을 확보

• 지원대상기업 선정시 「지식경영 지표」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기업 의 지식기반 확충을 유도

나. 개발된 技術의 擴散 및 事業化 促進

「技術移轉促進法」 시행으로 技術의 移轉·事業化 본격 추진

•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제정 (2000. 3 시행)

• 「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종합 계획」 수립·추진 (2000. 1/4)

•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에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·운영

기술이 상품처럼 거래되는

技術市場을 조성

• 정부와 민간의 공동출연을 통해 「韓國技術去來所」를 설립(2000. 2)하여 2000. 4월부터 본격 가동

-기술거래 중개·사업화 촉진, 전문적인 기술평가능력 확립 등

-다양한 기술평가·거래 전문기관 및 기술거래사 육성

• 기술의 시장평가에 따라 자금을 대출하는 기술담보금융의 여건을 조성하고, 기술담보 시범사업 확대(99:250억원 → 2000:500억원)

우수 特許技術의 활용 및 事業化 촉진

• [特許事業化協議會]를 통하여 사업화자금 지원(2000년 377억원)

• 「인터넷특허기술장터(IP-Mart)」 개설, 「특허엔젤클럽」결성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

• 중기청·특허청 등 9개 지원기관이 기술·경영지도 등 연계 지원

다. 國家技術革新시스템(NIS)의 구축

地域技術革新시스템(RIS) 확충을

통한 國家技術革新시스템(NIS)

기반 조성

• 『地域技術革新 綜合發展戰略』 수립·추진 (2000. 2)

•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

• 신기술창업보육사업(TBI)의 확충 (99:200억원 → 2000:240억원)

產·學·官 協力の 활성화

• 전국 공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大學産業技術支援團(UNITEF: University Industrial Technology Force)의 기능 강화

• 대학 및 연구소가 기술개발 후 기업을 선정하여 함께 사업화를 추진하는 창업연계 기술개발 (Spin-off)프로그램 확대

• 산·학·관 공동연구에 대해서는 자금 및 정보제공과 함께 향후 특허획득이 용이토록 개발단계에서 선행기술조사를 지원

라. 技術人力의 優待 및 效率的 需給體系 구축

技術人力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優待분위기 조성

• 연구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부여

•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연구자의 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우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기 포상을 실시

産業現場 중심의 高級技術人力 需給體系 구축

• 산업기술인력의 수급실태조사 (99. 9~2000. 1) 결과에 따라 수급효율화 대책을 수립(2000. 1/4), 대학교육 및 기술훈련제도 개선에 반영

• 산업계의 기술인력 활용 극대화를 위해 분야별로 기술인력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산업기술인력 D/B를 구축

- 산업계 주도의 다양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

2. 電子商去來 擴散基盤 強化

범국가적인 電子商去來 發展戰略 樹立

- 산업의 전자상거래체제 구축 등 5大 政策課題를 선정하고 관계부처와 세부실천 프로그램을 공동 수립 및 추진 (2000. 2)

역동적인 國家戰略 推進 民官 네트워크 構築

- 「전자거래기본법」에 의한 「전자거래 정책협의회」(위원장:산자부 차관)의 기능 강화
-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역점을 두어 시장과 정책간의 연계성 강화

産業部門의 電子商去來體制 構築

- 전자·자동차 등 8개 핵심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특성에 따라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전자상거래체제 구축(8개 산업 : 전자·자동차·철강·조선·중공업·섬유·전력·유통)

- 정부지원을 확충하고 Matching Fund 방식이외의 민간투자도 최대한 유도

* 2000~2002년간 총 727억원 투자 (정부 513, 민간 214)

- 「산업부문 전자상거래 종합추진단」을 운영하여 산업간 연계성 강화 및 추진상황 종합점검 中小企業의 電子商去來 擴散을

위한 基盤造成 推進

-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초고속통신망 우선 구축
- 중소기업이 쉽게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중개 서비스 업체(ASP: Application Service Provider)의 양성 추진
- 중소기업의 사이버 무역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전자카탈로그 제작 지원

* (99년) 1만개 기업, 5만개 상품 → (2002년) 2만개 기업, 10만개 상품 기업간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專門人力 養成 強化

-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수급실태 파악 및 인력양성 3개년 계획 수립 (2000. 상반기)
- 전자상거래 국가자격제도 신설 (2000. 하반기)

3. 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

가. 産業의 知識基盤化 促進

民·官합동으로 [産業別 비전과 戰略] 수립

- 지난해 마련한 주요 산업별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10대 主力産業(자동차, 조선 등)과 新産業(신소재, 생명공학 등)의 知識基盤化 戰略을 수립
- 산업별 발전전략에 따라 기술개발 등 기능별 지원, 규제개혁, 시장제도 정비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
- 기술혁신을 고리로 한 중소기업·벤처기업·대기업간 선순환

구조를 형성하고 산업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企業物流 시스템의 革新

• 『物流 標準化 및 共同化 3個年計劃』추진 (건교부 등과 연계) 地域戰略産業 育成計劃 및 産業團地 構造高度化 對策 추진

- 地域産業振興 5개년 계획을 지자체와 협의, 확정하고(2/4분기) 地域戰略産業育성에 대한 종합적 비전을 제시
- 혁신의 거점인 産業團地의 構造高度化를 위한 綜合對策 수립

나. 새로운 成長牽引産業의 창출·육성

生物産業의 획기적 육성

• 2010년 세계 6위권의 생물산업국 부상을 목표로 획기적인 지원체제 마련

• 기술혁신, 창업확산 및 이를 뒷받침할 산업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발전종합대책을 수립·추진(3월)

세계적인 光産業 집적단지 개발

• 투자와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인프라 구축과 관련 연구개발자금을 집중지원 (2000~2003, 광주지역 4,081억원 투자)

超傳導技術의 산업화

추진기반 구축

• 『초전도기술 산업화 프로젝트(K-Supercon Project)』를 수립·추진하여 에너지 효율혁명을 주도 次世代 멀티미디어 情報家電의

발전환경 조성

- 3차원 정보단말기, 양방향 디자인 TV 등 차세대 핵심기술의 본격개발 및 세계시장의 선점을 위한 표준화 강화

다. 標準制度 및 디자인의 先進化

글로벌 競爭力 확보를 위한 國家標準體系의 정비

- [國家標準基本計劃]을 수립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표준제도 정립 (2000. 2/4)
- 標準·認證·試驗檢査 등의 國際標準 符合化 活動을 적극 전개
- 주요 국가(일본, 칠레, 호주 등)와 相互認定協定(MRA) 체결을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여 技術的 貿易障壁을 해소

競爭力 있는 디자인 産業의 育成

라. 部品·素材産業의 劃期的 育成

글로벌소싱 유망기업의 성장을 위한 市場親和的 시스템 구축

- 부품·소재 전문기업을 다수 발굴·육성
 - KIST 등 8개 연구기관, 벤처캐피탈 등 20여개 투자기관이 각각 통합연구단 및 투자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발굴
 - 유망기업으로 R&D·사업화자금, 고급기술인력 등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
- 신뢰성평가기반 구축 및 보험제도 도입
- 개발 부품·소재의 시장진입을



세계경제는 미국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어 국내 경제 역시 6%정도의 성장을 기대 할 수 있다. 이를 근거로 산업자원부는 정보기술, 글로벌 마켓 형성, 시민사회 성숙 등의 200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.



촉진하기 위해 信賴性評價 綜合 Master Plan을 수립하고(1/4분기), “信賴性 評價·認證事業運營要領(가칭)”을 제정(2/4분기)

- 신뢰성 인증제품 대상의 信賴性 保險制度를 도입(하반기)

自動車 유지보수용 部品 販賣專門 會社 育成

마. 2단계 企業 構造調整의 추진

1단계 構造調整의 마무리 및 R&D 중심의 企業構造調整 추진

- 7개업종의 사업구조조정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
- 大企業은 핵심역량에의 집중, R&D투자확대 등 內部革新 가속화를 유도

企業構造調整 關聯制度의 整備

- 부실채권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자산유동화법상 資產保有者로 指定 추진
 - 중소기업부문의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해 전문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투자중심으로 전환(창업 및 진흥기금 99 : 50억원 → 2000 : 300억원)
 - 전문회사가 구조조정 활동에 전념하도록 부실기업 인수비율 제한과 특수관계인의 投資上限을 설정 (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)
 -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制度改善 추진
- 大企業 投資動向의 주기적인 모니터링
- R&D투자 등 未來指向的 投資가 이루어지도록 量的인 設備投資 외에도 技術開發·情報化 投資 등도 조사 (연2회)

4. 技術力 있는 中小·벤처企業의 成長與件 造成

가. 벤처企業의 持續可能的 成長基盤 構築

나. 中小企業의 自生力 強化

- 獨自技術力 確保를 위한 支援強化
- 21세기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『技術競爭力 向上 5個年 計劃』을 수립(2000. 하반기)
 -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을 선정(3년

간 1000개 업체)하여 技術, 資金, 販路 등을 綜合的으로 支援

• 産·學·官 연계하여 技術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『産·學·官 공동 컨소시엄사업』을 확대(99:130억원 →2000:210억원)하고 시험 설비의 공동활용 네트워크 구축

財務構造 改善과 構造調整 促進

• 기업개선 펀드 운용(500억원), 자산 유동화 증권(700억원) 발행 등 중소기업의 直接金融 활용을 촉진
• 부채비율이 中等업종 평균의 2배 보다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지원을 제한

• 정보화 수준이 미흡한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『知識基盤 中小企業 發展 3個年 計劃』을 수립·추진
중소기업의 輸出 및 內需基盤을 지속적으로 擴充

• KOTRA, 증진공 등 유관기관과 종합적 수출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1천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

•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를 확대(99:30조→2000:33조)하고 매일 구매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

5. 安定的 貿易黑字基調의 定着

가. 무역확대를 통해 黑字基調를 정착시키기 위한 戰略推進

글로벌 競爭力을 갖춘 輸出商品 개발 輸出産業의 전반적 供給能力 強化 및 輸出底邊 擴大

高輸入構造의 改編

나. 貿易인프라의 擴充

사이버무역 활성화를 위한 法的基盤 整備

• 『對外貿易法』을 전면개정하여 사이버무역 확산에 따른 權利·義務관계의 變化를 수용하고 認證·紛爭解決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

『貿易인프라擴充 5個年 計劃』수립

• 5대 핵심인프라의 장단기 확충전략 및 재원확보전략 마련

* 5大 課題 : ①무역전시 ②사이버무역 ③무역인력 ④무역정보 ⑤국제협력

• 무역전시공간의 확충 및 세제지원 등 운영의 內실화를 통해 무역전시산업을 경쟁력 있는 高附加價値産業으로 육성

• 貿易專門人力의 수급 원활화를 위한 實態調査를 실시하고 需要指向의인 무역정보 공급체계 구축

Cyber貿易 확산을 위한 與件 造成

• 대규모 Cyber 輸出相談會를 개최하고 수출지원기관 및 지자체를 연계하는 貿易 Portal Site를 육성

• 大學에 『사이버무역과정』을 확충하고 『사이버 무역연수원』 개원 등 Cyber 貿易專門人力의 養成시스템 확충

• Cyber 무역의 흐름을 단계별·유형별로 정밀분석한 『Cyber Trade Map』을 개발하여 각 단계별 에 로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

다. 積極的 海外市場開拓活動의 추진

특화된 市場진출전략 전개

• 『戰略市場別·商品別 競爭力 分析』을 실시하여 잠재유망상품 개발 및 기존 수출상품에 대한 수출확대 전략 마련

• 미국, EU 등 先進市場은 Niche Market 중심으로 新需要 창출

• 中東, 인도, 남미 등 新興開途國 市場은 경제개발과 연계한 폴란트 輸出 확대

• 中國은 5월중 兩國 産業協力委員會를 개최하고 시장성이 큰 주요 거점 도시에 KOTRA 무역관을 신설

• 日本은 부품·소재, 전력기자재 등 전략산업 진출 및 GSP 적용 제외 등에 대응한 고관세 인하 요구

확산되는 輸入規制에 대한 通商對應活動 強化

• 세계적인 輸入規制 강화추세에 대한 사전적 대응을 위해 민간합동의 통상활동 전개

라. 黑字目標達成을 위한 短期的 對應努力 強化

• 貿易收支 黑字維持의 관건인 환율·금리·불가 등 거시경제변수를 안정적으로 운용토록 관계부처간 共助體制 강화

• 환가료·외환매매 수수료 등 금

용비용과 해상운임 등 불류비를 포함한 輸出附帶費用의 지속적인 절감노력을 강화

6. 『世界的인 投資마당』의 造成

가. 外國人投資制度和 興件의 再整備

外國人投資 中長期 비전의 수립 : 2010년까지 GDP대비 외국인투자비중을 20%수준으로 제고

• 인센티브제도, 투자유치체계, 사후관리시스템 등 기존의 외국인 투자정책을 再檢討하여 21世紀型 外國人投資政策의 새로운 틀과 전략을 마련

• 산업의 성숙도 등을 감안한 産業別 外國人投資戰略을 수립

國際的 基準에 부합하는 外國人投資 인프라의 정비

• 「外國企業 經營·生活環境 先進化對策」수립추진

• 외국기업 隘路事項을 정기적으로 公表하여 자발적 해소 촉진
投資인센티브의 效果性 제고

• 첨단·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투자인센티브의 選別性 및 彈力性을 제고

• 이러한 제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外國人投資促進法令을 개정

나. 投資誘致活動의 效率性 提高

地自體의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

• 外國人投資地域 지정시 地自體

에 대한 豫算支援의 탄력성을 제고하여 지자체의 투자유치 노력을 촉진

• 외국인투자지원센터(KISC)의 地自體 支援機能의 획기적 강화
海外地域別 특성을 고려한 戰略的인 投資誘致活動의 전개

• 엔高하에서 하이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日本 企業을 적극 유치

• 본격적인 아시아 진출을 추진중인 유럽·미국기업을 중심으로 [200대 戰略的 誘致企業]을 선정하여 집중적 유치활동 전개

- 구체적 대상과 주제를 가진 [小規模 맞춤형 投資使節團]을 수시 파견

• 금년도 160억불 투자유치를 위해 프로젝트 전담관리체제 年中 가동

다. 내실있는 海外投資促進을 위한 制度改善 推進

• 해외투자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잔존규제를 완화

• 高위험국에 대한 연불수출 확대, KOTRA내 원스톱서비스 체제구축 등 금융지원·정보제공 기능 강화

• 對개도국 EDCF자금 지원을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와의 연계

7. 積極的인 에너지政策의 推進

가. 에너지低消費型 構造로의 轉換 촉진

• 에너지가격의 적정화를 통해 自發的 消費節約 유도

• 에너지技術開發 및 實用化 촉진

• 氣候變化協約의 進전에 적극 대응

• 21세기 경제·사회 여건변화 대응을 위해 國家에너지戰略 再定立

나. 에너지産業의 競爭力 強化

• 電力産業 構造改編의 차질없는 推進

• 가스産業의 競爭基盤 구축

• 에너지産業 構造改編의 弘報

다. 에너지 需給安定 도모

• 주요 에너지供給施設의 적기건설 추진으로 安定的 供給基盤 擴充

• 에너지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安定的인 에너지 需給方案 강구

• 積極的인 國內外 資源開發 추진

• 原電事業의 차질없는 추진

• 에너지 事故豫防을 위한 安全管理 강화